

# 책다움에서 출발하는 실험적 표현

## 영국 아티스트북의 세계

차정인 · 이화여대 산업디자인과 강사

책은 음식을 담는 그릇처럼 내용을 담아 준다. 책은 오랫동안 좀처럼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려 나서지 않았고 그것이 미덕이었다. 보는 사람이 책에 담긴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책 자체는 바라보지 않아도, 잊고 있어도 좋았다. 그런데 그런 책의 존재방법에 대해 새로운 자극이 생겼다. 자극은 책이 존재해왔던 그 자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싹트고, 책 그 자체가 갖는 근본적인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 책의 잠재력에 눈뜸

'책다움'(bookness)-페이지가 되는 종이 등의 재료, 묶음 방식(binding), 인쇄(printing) 자체가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책이 품는 이미지(image)와 텍스트(text), 연속적인 흐름(sequential flow), 움직임의 가능성(kinetic possibilities) 등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잠재능력에 대해 눈을 뜬 것이다. '책' 그 자체가 '물리적 주체'가 되고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가능성에의 인식, 그것이 바로 '아티스트 북'(artist's book) 혹은 북아트(Book Art)의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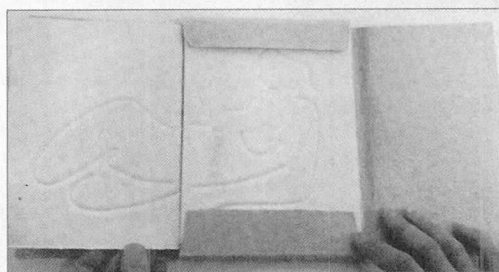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책이 그 물리적 형태를 갖게 되는 과정을 담당했던 디자이너·인쇄인·제본가들은 책이 그들의 손을 떠나 독자에 이르면 거의 완벽하게 비주체적인 익명의 제작자가 될 뿐이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자신의 표현영역을 중심으로 '책'에 대해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주체자인 '아티스트'가 될 수 있고, 그 누구라도 그들의 생각을 '책다움'에 비취 미적으로 표현한다면 '북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북아티스트이며 예술비평가인 요한나 드러커는 예술적 형태

(artform), 즉 표현매체로서의 책은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아티스트들의 실험에 의해 표현은 더욱 풍성해지고 언어는 더욱 복합적으로 돼가고 있는 '혼합예술'(hybrid artform)이라고 말한다.

영국은 미국, 유럽과 함께 북아트를 새로운 예술적 장르로서 인정하고 다양한 배경·디자이너·화가·조각가·시인·판화가·음악가 등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참여하고 있어 기존의 표현매체와 일반적인 책 디자인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또 교육적으로는 미술대학에 전문과정을 두어 학문적 지식과 실제작업이 강하게 연계된 접근방법을 통해 책의 기능성에 대한 실험적 표현을 하고 이를 비평하면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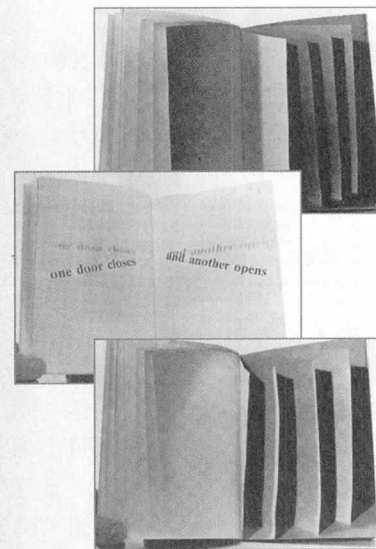
영국은 사회·문화적으로 전통을 중요시하고 보수성이 강해 이에 저항하는 전위적 의식과 표현 또한 강하게 나타나고 그 두 성향이 공존하는 양상을 흔히 보게 되는데, 북아트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북아티스트인 레스 비크넬은, 북아트의 양극에는 각각 전통 수공예적인 책의 모습과 전위적인 행위나 설치로 개념화한 책이 존재하며 아티스트들은 그 양극 사이의 어딘가에서 자신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 모두 '책다움'에서 그 출발점을 찾고 있다.

책은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viewer)을 전제한다. 다른 매체에 비해 책은 독자와의 만남에 있어서 속임이 없고 친밀하다. 다시 말해 책은 보는 사람에 의해 열리고 닫히는 즉각적인 대상으로, 보는 사람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다. 손으로 만지고 페이지를 넘기며 자유롭게 보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상상의 시간을 끼워넣을 수도 있고, 이곳저곳 내기는 대로 경험할 수 있으며, 책을 덮음으로써 그 속에서의 경험을 안전하게 비밀스럽게 보관할 수 있는 일대일의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본으로 한다. 더욱이



·〈Turn over Darling〉(Ron King)

영국 씨클프레스의 대표인 론 킹의 가장 인기있는 작품으로 오철로 인쇄된 누드여인의 포즈가 페이지의 앞뒤관계로 연결되면서 변화한다. 책의 구조와 그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명쾌하게 경험할 수 있다.



·〈Real Fiction〉(Helen Douglas · Telfer Strokes)

책공간을 떠도는 텍스트와 벽·담·방 등 구조물로 은유된 책의 이미지들이 번갈아 보여짐으로써 책 자체가 지니고 있는 요소들, 즉 시작과 끝, 펼친 페이지들, 열고 닫음, 묶여짐, 페이지 넘김, 그리고 연속성에 대한 의식적 접근으로 관심을 유도한다.

접근하기 쉽고 값이 싸며 누구나 들고다니다며 원할 때 어디에서나 특별한 장치 없이도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표현자들을 끌어들이는 책의 매력이다.

###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총체로서의 책

책의 여러가지 물리적 요소들은 그것이 담아내고자 하는 사고(idea/content)와의 관계 속에서 선택되고 조절될 때 적절한 조화를 이룬다. 예를 들면 재료의 감각, 좌우페이지(recto/verso), 텍스트와 이미지(text/image), 공간과 시간(space/time) 그리고 움직임(movement), 제본방식(binding) 등이 물리적·개념적·시각적인 '총체로서의 책'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티스트들이 이런 요소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책은 성서처럼 아주 오래된 것 같은 전통적인 형태(codex)나 그것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동양의 부채(fan)나 두루말이(scroll), 혹은 병풍식의 접는 책(fold book)의 형태를 띠기도 하며, 어떤 것은 블라인드(blind)나 낱장의 카드가 상자에 모아지는 형식(portfolio)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양한 재료 즉 여러 질감이나 두께의 종이, 투명한 재료들, 합성수지·형질·가죽·금속·나무 등이 검토되고 선택되는 과정,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가 놓여지고 연결되는 방식이 책의 공간과 시간의 개념, 움직임,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다뤄져야 한다는 사실은, 내용을 재료와 구조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인쇄방법, 즉 옵셋인쇄·목판·동판(에칭/드라이포인트)·석판·실크스크린·사진·레터프레스·엠보싱(blind embossing/debossing) 등과 종이의 조작 즉, 접기(folding)·자르기(cutting)·구멍내기(die-cutting) 등도 언어를 다양하게 표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책들은 일반 상식을 벗어난 책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 보는 사람들에게는 내용과 형식을 통한 총체적인 미적 체험을, 그리고 미래의 책들에 대해서는 풍부한 자극을 제공한다.

밥상이 단지 목숨을 잇기 위해 끼니를 차리는 형식 이외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 즉 음식과 그릇, 그 차림새 등 다양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삶에 여유가 생겼음을 뜻한다. 지금 우리가 책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은 우리 삶의 질과 문화적 취향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 <영국의 북아트를 만날 수 있는 곳>

학교 도서관	첼시컬리지/런던 컬리지 오브 프린팅 /센트럴 세인트 마틴즈/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
박물관·화랑	데이트 갤러리/빅토리아 엘버트 박물관 내 내셔널 아트라이브러리
아티스트북 취급서점	에딘버러의 후루즈마켓 갤러리/아이씨에이 북숍 /달론즈 아트북숍/세펜타인 갤러리 /화이트채플 갤러리의 즈웬머스 북숍
기타	영국 국립 브리티시 도서관 및 공공 도서관